이슈 분석

개인형 IRP 수익률 현황과 과제

김세중 연구위원

요약

2017년 7월부터 개인형 IRP의 가입대상이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등으로 확대되면서 개인형 IRP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2016년 개인형 IRP 규모는 12.4조 원으로 전체 퇴직연금 중 8.4%를 차지하지만, 수익률은 타 퇴직연금제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5년 장기 수익률을 비교해 볼 때 개인형 IRP 수익률이 DB형 및 DC형 퇴직연금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실적배당형 자산수익률만을 보더라도 개인형 IRP 수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남. 개인형 IRP 가입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회사들은 개인형 IRP 수익률이 유사제도인 DC형 퇴직연금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은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2017년 7월부터 개인형 IRP의 가입대상이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등으로 확대되면서 개인형 IRP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2017년 1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그간 IRP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 등을 새롭게 IRP 가입대상에 포함하기로 함
- 이에 따라 개인형 IRP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들은 개인형 IRP 마케팅을 강화하고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개인형 IRP시장 확대에 대비하고 있음
- 본고에서는 개인형 IRP의 수익률 현황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도록 함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6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에 따르면 개인형 IRP 규모는 12.4조 원으로 전체 퇴직연금 중 8.4%를 차지하지만, 수익률은 타 퇴직연금제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말 기준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47.0조 원이고, DB형 퇴직연금이 99.6조 원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하며, DC형 퇴직연금(34.2조 원), 개인형 IRP(12.4조 원), 기업형 IRP(0.8조 원) 순의 규모를 나타냄

- 2016년 기간 중 수익률은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기업형 IRP 포함)이 각각 1.68%, 1.45%를 나타낸 반면 개인형 IRP는 1.09%로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함

■ 2016년 기준 제도유형별 5년 장기 수익률을 비교해 볼 때도 개인형 IRP 수익률이 DB형 및 DC형 퇴직연금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실적배당형 자산 수익률만을 보더라도 개인형 IRP가 가장 낮게 나타남

- 개인형 IRP의 5년 장기 수익률은 2.64%로 2.77%의 DB형 퇴직연금과 3.05%의 DC형 퇴직연금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5년 장기 수익률은 수수료 비용을 차감한 수익률로, 개인형 IRP 수수료 비용이 DB형 및 DC형 퇴직연금에 비해 적거나 유사한 수준임을 고려하면 개인형 IRP의 5년 장기성과는 더욱 낮아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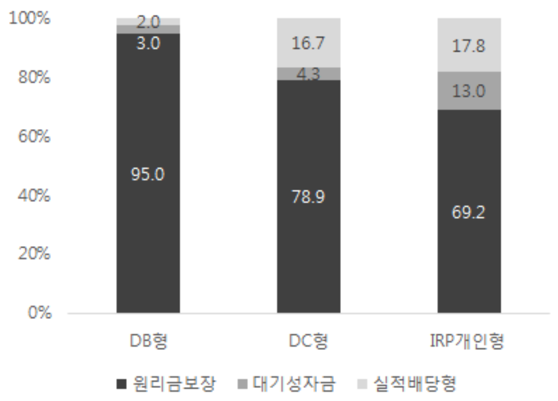
〈표 1〉 퇴직연금제도별 5년 장기 수익률

권역	구분	DB	DC/기업형 IRP	개인형 IRP
전체	5년	2.77	3.06	2.64
원리금보장	5년	2.76	3.05	2.67
실적배당형	5년	3.12	3.07	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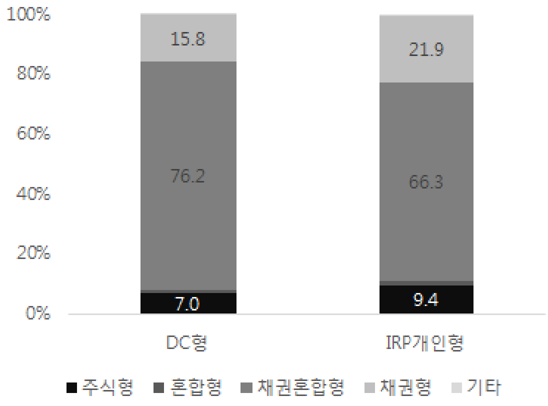
주: 과거 5년 동안의 총비용 차감 후 연 환산 수익률이며, 원리금보장에는 대기성 자금이 포함됨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 5), 2016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 현황

- 자산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개인형 IRP의 원리금보장형 자산 수익률도 가장 낮은 수준이나 이는 투자형태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대기성 자금이 개인형 IRP에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그림 1〉 참조)
  - 대기성 자금은 변동금리로 부리되며 금리하락기에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을 수 있음
- 실적배당형 자산의 경우 소비자의 퇴직연금 사업자 및 펀드 선택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나 역시 개인형 IRP의 수익률 성과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퇴직연금제도별 적립금 운영 현황



〈그림 2〉 DC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IRP 실적배당형 투자 비중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 5), 2016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 현황

- 퇴직연금제도 중 금융회사가 거의 동일한 펀드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는 개인형 IRP와 DC형 퇴직연금의 실적배당형 자산 수익률이 자산 포트폴리오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그림 2〉 참조) 장기성과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가입자의 수익률 관리 노력 여부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음
  - 개인형 IRP와 DC형 퇴직연금 펀드 포트폴리오를 비교해 보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며, 금융회사는 대부분 개인형 IRP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 동일한 펀드선택 범위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러나 개인형 IRP의 2016년 기준 5년 장기 수익률은 DC형 퇴직연금에 비해 0.14%p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개인형 IRP와 DC형 퇴직연금의 권역별 비중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며, 권역별 비중 차이에 의한 수익률의 차이는 아닌 것으로 보임
  - 개인형 IRP와 DC형 퇴직연금은 펀드선택 및 변경 등 가입자의 수익률 관리 노력에 따라 수익률 성과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두 제도 간 수익률 차이는 가입자의 수익률 관리 노력 정도에서 일부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음

〈표 2〉 권역별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

구분	은행	생보	손보	금융투자	근로복지공단
DC형	65.4	13.5	2.9	14.6	3.6
IRP 개인형	66.5	13.2	2.8	20.2	0.0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 5), 2016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 현황

- 개인형 IRP 가입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회사들은 개인형 IRP 수익률이 유사제도인 DC형 퇴직연금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은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형 IRP 수익률이 유사제도인 DC형 퇴직연금에 비해 낮은 성과를 지속하고 있으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 금융회사들이 개인형 IRP 가입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형 IRP 수익률이 유사한 퇴직연금제도인 DC형 퇴직연금에 비해 낮은 성과가 지속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 개인형 IRP 가입자에 대한 적극적인 펀드 정보전달, 펀드 변경 등의 운용방식 교육과 같은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며, 정보전달 및 교육에 있어 온라인과 모바일 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할 것임

kiri